脫마스크 때문인가… 때아닌 '5월 독감' 유행

큰 일교차 등 영향 병원마다 환자 최대 10배 증가…10~30대 다수
면역력 올리고 청결 습관 유지 등 또다른 팬데믹에 경각심 가져야

나주시 다시면에 사는 조영희(여·63)씨는 지난 1일 목덜미 뻐근함과 함께 인후통을 겪었다. 지나가는 통증일 거라 방치했지만 이후 침을 삼키기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고 오한에 몸살 기운까지 느꼈다. 빛가람종합병원을 찾은 조씨는 A형 독감을 판정받고 타미플루 5일분을 처방받았다.

직장인 장영훈(30)씨는 지난 14일 A형 독감을 된통 앓았다. 근육통으로 시작된 증상은 식욕 저하와 기침, 무기력함으로 이어졌고 응급실에 갔을 땐 열이 39.4도까지 오른 상태였다. 두통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했고 잦은 기침으로 목이 잔뜩 부었다. 장씨는 응급실에서 해열 링거를 3시간 가량 맞고 나서야 열이 떨어져 귀가할 수 있었다.

환절기 큰 일교차와 방역 완화 등으로 광주지역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병원마다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나면서 내과와 소아과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진료환자 1000명 대비 독감 의심 환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월 9.7명이던 독감 환자는 2023년 1월 87.7명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2월은 7.7명에서 32.5명, 3월은 7.3명에서 16.5명, 4월은 9.3명에서 24.7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실제 광주지역 병원들은 최근들어 전체 환자 중 독감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북구 현대병원의 최근 호흡기 환자 중 독감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달한다. 예전에는 하루에 많아야 한명 있을까 말까 했는데, 요새는 하루 최대 5명까지도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북구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 관계자도 "평소라면 하루에 독감 환자 1명이 올까말까 하지만, 4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평균 6명까지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 월산동의 베스트이비인후과도 "이전에 하루 1명꼴로 찾던 독감 환자들이 방역 완화 이후로 하루 10명씩 찾는다"고 밝혔다.

환자 대다수는 10대부터 30대다. 초여름 날씨에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수련회, 소풍 등을 떠나는 학교가 많아지면서 활동량이 높은 연령대에서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져 독감 환자가 대폭 늘어난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남구의 조민석 내과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면역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방역 완화와 동시에 마스크를 벗다 보니 전염이 비교적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낮과 밤 큰 일교차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비교적 쌀쌀한 오전과 밤 기온에 비해 낮 기온이 높은 까닭으로, 온도에 따른 옷차림에 유의가 필요하다.

23일 기준 최저 기온 14도, 최고 기온 26도로 전망됐다. 일교차는 12도 가량으로, 지난 17일에는 최대 14도차까지 큰 폭의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청결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독감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첨단베스트내과의원 관계자는 "열이 나거나 오한이 들어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 대다수가 독감으로 판정된다. 독감 예방주사와 함께 비타민을 잘 챙겨먹고 개인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남구의 123내과의원도 "A형 독감은 코로나와 증세가 비슷해, 코로나와 함께 검사한다"며 "예방법에 왕도는 없지만 손 잘 씻고 사람 많은 곳에선 마스크를 잘 쓰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독감을 코로나와 동일한 바이러스로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영 우리들내과 원장은 보통 독감은 3월과 가을께 많이 발생하는데 5월까지 독감이 이어지고 있는 건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바이러스 질환이듯 독감도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다"며 "방역완화와 엔데믹이 코로나와의 완전한 안녕이 아니듯 또 다른 팬데믹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세계 고려인들, 160년 만에 광주서 만났다

제1회 세계고려인대회 성료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 출범
"고려인들 체계적 지원할 것"

전세계에서 모인 고려인들이 지난 19일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고려인대회에서 국기를 흔들고 있다.

항일 운동, 농업 이민, 강제동원 등으로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졌던 고려인들이 160여년 만에 광주에 모였다.

이들은 광주에서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를 출범하고 전세계 고려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선포했다.

21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광주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 준비위원회,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 고려인마을 주최로 호남대 등에서 제1회 세계고려인대회가 열렸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60여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려인마을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고려인협회 관계자를 초청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축하 공연을 열었다.

고려인은 1860년대 무렵부터 농사를 짓기 위한 이민, 항일독립운동 등을 이유로 구 소련으로 이주했다가 중앙아시아 등지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을 일컫는다.

광주고려인마을은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난민 위기에 처한 고려인들을 도우며, 체계적인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지난 1월부터 각국 고려인단체와 연락해 날짜를 조율했고, 지난 19일 호남대에서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 출범식을 열게 됐다. 출범식에는 각국 고려인협회 관계자와 고려인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신조야 광주고려인마을 대표와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이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이들은 2년에 한번씩 모여 고려인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조야 대표는 "광주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고려인이 모일 것으로 감히 상상조차 못했는데, 전세계에서 온 고려인들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앞으로 고려인들과 힘을 합쳐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고려인마을 주민들과 각국에서 온 고려인들은 이날 처음 만났지만, 서로 이름을 묻고 안부를 전하며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이날 광주고려인마을 극단과 어린이합창단 등이 축하공연을 선보였고,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만남' 예술단은 강강수월래 등을 한국어로 부르며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만남 예술단 관계자는 "고려인으로 구성된 우리 예술단은 키르기스스탄에서도 한국 전통 노래를 부르며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현지에서도 인기가 좋은데, 여기서도 반응이 뜨거워 괜히 눈물이 나온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 아나스타샤 (여·20)씨는 "처음 만나 서로 어색할 법도 한데, 한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금방 친해질 수 있어 신기하다"며 "전세계에서 고려인들이 모인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2001년부터 고려인이 모이며 형성된 광주 고려인마을에는 현재 7000여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마스크 쓰세요" 광주·전남 황사 예보

23일 이후 풀릴 듯

22일 광주·전남의 하늘은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로 뒤덮일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2일 광주·전남의 미세먼지는 '매우나쁨' 수준이고 초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8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21일 오후까지는 중부지역에 영향을 주고 22일부터는 호남권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황사는 광주·전남에서 23일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22일 전국적으로 황사가 퍼질 것으로 보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황사의 국내 영향 범위와 농도 수준, 그리고 지속시간은 기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니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호수공원 골칫거리 '꽃 도둑'

쑥부쟁이 수십 주 무단 절도…시 "수사 의뢰 검토"

나주의 한 공원 꽃밭에서 쑥부쟁이 수십 주를 시민들이 무단으로 캐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40대 여성 5명이 11일 오후 5시께 나주시 빛가람동 빛가람호수공원에 조성된 쑥부쟁이 꽃밭에서 삽으로 꽃을 파서 쇼핑백에 담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파헤쳐진 쑥부쟁이 꽃밭과 함께 여성 5명이 뒤돌아 길을 떠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게시됐다.

작성자는 "이들은 마음먹고 온 것 같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며 "꽃을 다시 제자리에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썼다.

이들이 가져간 쑥부쟁이는 대략 30주~50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대책회의를 열고 22일 꽃밭 인근에 'CCTV 녹화중'이라고 쓰인 팻말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바람길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꽃밭이 만들어진 빛가람호수공원은 평소 혁신도시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6~7월께 꽃을 피우는 쑥부쟁이를 집에다 옮겨 심기 위해 무단으로 캐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